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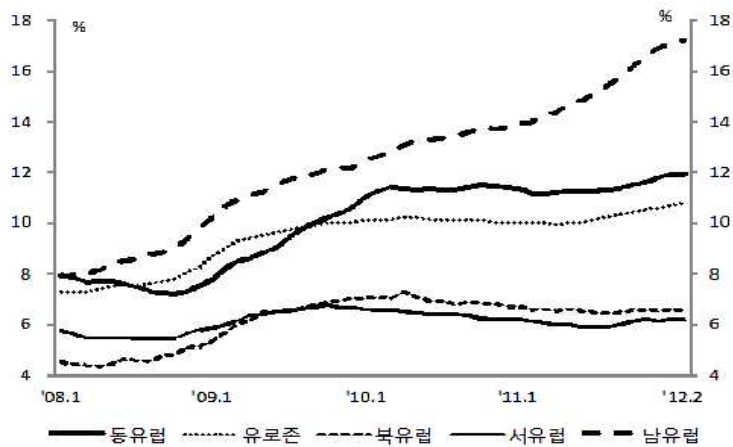


유로존 2월 실업률 10.8%로 최고치 경신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로존의 2012년 2월 실업률은 10.8%로 전월의 10.7%에서 소폭 상승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는데 이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.
- 유로존 17개국 전체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,713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162,000명, 전년 동월에 비해 1,476,000명 증가하였음.
-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수출 부진, 강력한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유로존의 실업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지역별로는 '남유럽(17.2%) 및 동유럽(11.9%)' 지역의 실업률이 '서유럽(6.2%) 및 북유럽(6.5%)' 지역의 실업률 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확대됨.

〈그림 1〉 유럽의 지역별 실업률



자료: Eurostat.

- 2008년 초까지만 해도 8%대를 하회했던 남유럽¹⁾과 동유럽²⁾의 실업률은 2012년 2월 현재 17.2%와 11.9%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평균 실업률(10.8%)을 크게 상회함.
- 서유럽³⁾과 북유럽⁴⁾의 실업률은 각각 2009년 말(6.8%), 2010년 초(7.3%) 이후 하락하여 2012년 2월 기준 6.2%와 6.5%를 기록함.

■ 한편, 25세 이하 청년 실업이 유럽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됨.

- 남유럽 (40% 수준)과 동유럽(30% 수준) 지역뿐만 아니라 북유럽(16.4%) 및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유로존 평균(21.6%)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인한 불황 속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을 추진 중인 스페인(50.5%)과 그리스(50.4%)의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포르투갈(35.4%)과 이탈리아(31.9%)의 청년 실업률도 30%를 상회함.
 - 동유럽 청년실업률은 슬로바키아(34.2%), 불가리아(32.2%), 폴란드(27.5%), 헝가리(27.8%)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.
 - 스웨덴(23.5%), 핀란드(19.8%)는 북유럽 평균(16.4%)을 웃돌고 있고 덴마크(14.7%)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임.
 -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21.7%를 기록, 독일(8.2%), 오스트리아(8.3%), 네덜란드(9.4%)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(Bloomberg 및 Eurostat, 4/2)

1)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, 이탈리아.
 2) 폴란드, 슬로바키아, 헝가리, 불가리아.
 3)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.
 4)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덴마크.